

독해 Reading process

글쓴이: no.9 Lewandowski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1.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태양 중심설을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는데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서다.' 라고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문장이 길 땐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순으로 처리해주면 된다.)

2.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서양의 우주론 → 중국으로 전파되자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여기서 회통하다는 뜻은 저도 몰라서 일단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 중국 전파 과정에서 자신(중국)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나와있으니 저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 중국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㉔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㉕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㉚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1.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복잡한 문제(천체의 운행) → 단순화 해 푸는 수학적 전통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는)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따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 2.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고 한다. 우주의 중심에~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까지는 지구 중심설이 대충 이런거구나~하고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앞 문단에서 봤던 내용을 떠올려보면 이제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 3.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와는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태양 중심설 모형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형이상학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 따로 정리해둔 내용을 상기하자. [따로 정리해둔 이유는 1문단에서 형이상학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서다 ^^]

4.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보고선 이게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더 좋은 상황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것도

뭔가 더 발전되고 나아졌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 ↑ → 공전 주기 ↑는 따로 정리해주면 된다.)

5.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하지 않았다.

그럼 뒤에는 왜 받아들여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올 것이다.

아마 그 이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코페르니쿠스는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서겠지?)

6.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낱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는 아마 형이상학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의 문장을 일반화시키면 인간의 존재를 낮추어보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낱 ~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러한 형이상학은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앞 문단에서 형이상학이 뒤바뀐다고 되어있었으니)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